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4-7】 2014. 3. 19.

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전략과 시사점

목 차

Ⅰ.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 ····· 1

Ⅱ.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전략 ····· 2

Ⅲ. 시사점 ····· 7

국별조사실

작성: 선임조사역 오경일 (3779-5720)
oki1122@koreaexim.go.kr

확인: 실 장 김주영 (3779-5702)
jykim@koreaexim.go.kr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▣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중국은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 이하에서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.

I.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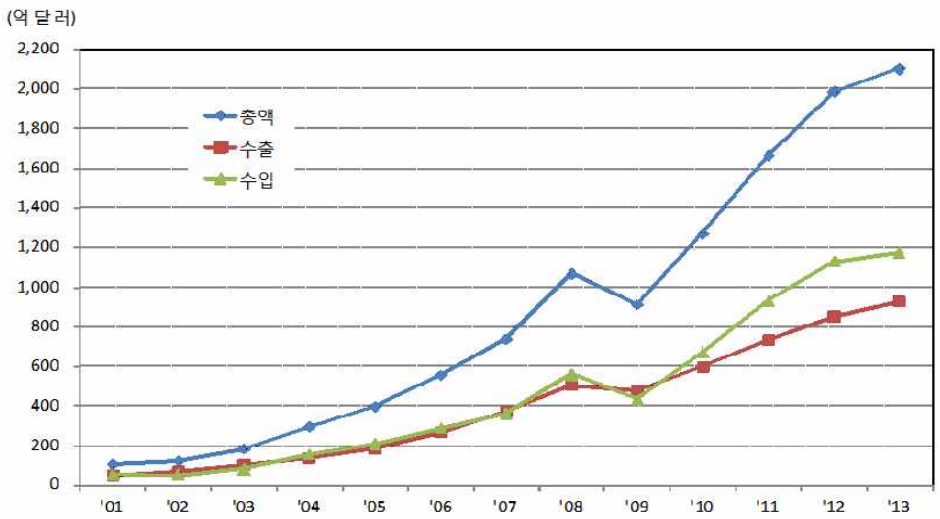
□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규모, 12년간 19.8배 증가

○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2001년 106억 달러에서 2013년 2,102억 달러로 12년간 19.8배 증가하였음.

- 중국의 대외교역 총액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점유율은 2001년 2.1%에서 2013년 5.1%로 2.4배 상승하였음.

○ 대 아프리카 수출은 전자기기, 기계류 등 자본재와 의류 등 소비재 중심,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광물자원(남아공), 원유(앙골라, 수단), 목재(카메룬) 등 원자재 중심임.

<그림 1> 중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액 추이 (2001~13년)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.

□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, 중국 전체의 5% 점유

○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2012년 말 217.3억 달러('12년말 누계)로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%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.

- 투자 분야는 초기에는 에너지(약 25%)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금융, 제조, 서비스, 농업, 교통운송 등으로 다양해졌음.

- 중국 기업의 대 아프리카 투자 관련 자금지원은 중국수출입은행(ChinaEXIM)이 주도하고 있음.

○ 중국의 무역·투자 확대에 따라 최근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위안화 표시 결제도 증가 추세에 있음.

-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남아공, 모리셔스, 케냐, 우간다, 잠비아 등에서 이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함. 또한 가나,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위안화를 포함하고 있음.

※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2001년 46억 달러에서 2013년 170억 달러로 3.7배 증가하였으나, 대외교역 총액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점유율은 2001년 1.6%에서 2013년 1.6%으로 정체되었음.

※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총누계의 1.4%에 불과한 수준임.

Ⅱ.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전략

□ 원조에 기반한 수주활동: 우대차관을 활용한 상생

○ 중국은 2000~11년 중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1,673개 프로젝트에 총 75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음.

○ 무상원조가 권력층을 위한 전시성 건설사업(대통령궁, 대형 경기장 등)에 치중되어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, 원조의 중심이 무상원조에서 우대차관으로 이동하였음.

- 우대차관 제공은 1995년부터 중국수출입은행(ChinaEXIM)이 전담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여, 2006년 5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00억 달러로 4배 증가하였음.

○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제공은 투자진출과 대외원조의 결합이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중국의 우대차관 등 대외원조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등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이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고, 중국에서 대규모 인력, 기자재, 기술, 물자 등을 현지로 송출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구조임.

- 2011년 중국의 해외 수주 계약총액의 32.2%가 아프리카 정부 발주 프로젝트로, 이는 아시아 지역(49.0%)에 이어 제2위 규모임.

※ 우대차관 제공은 경제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생력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○ 중국의 2000~11년 중 대 아프리카 원조는 상위 10개국에 69.7%가 집중되었으며, 분야별로는 철도, 발전소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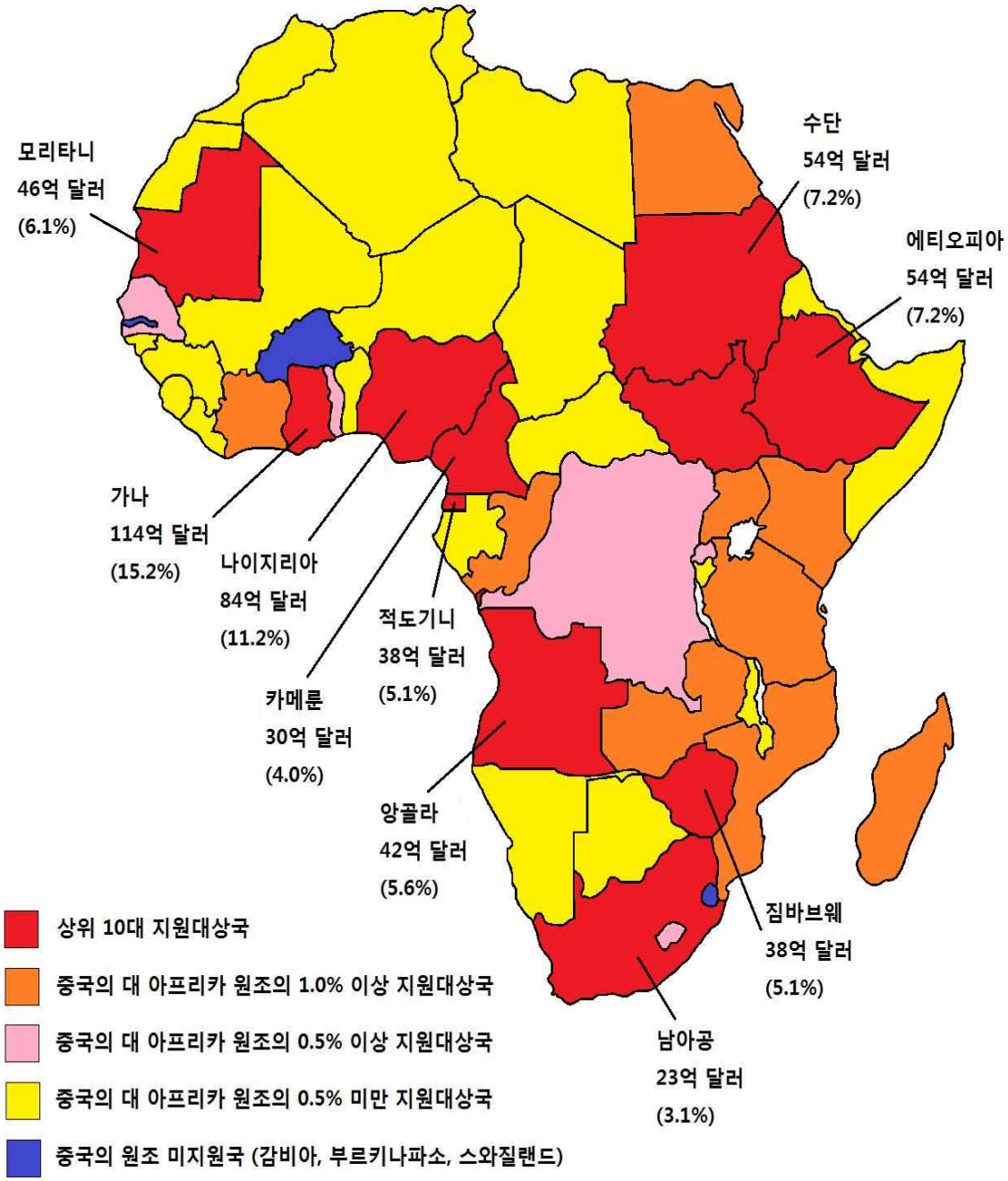
- 단, 원조총액 기준 1위인 가나의 경우 교통, 위생 교육 개발 부문에 원조총액(114억 달러)의 약 48%(55억 달러)가 집중되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<표 1> 중국의 2000~11년 중 대 아프리카 국가별 원조*

국가명	원조총액(억 달러)	주요 내역
가나	114 (15.2%)	교통, 위생, 교육 개발 (2010년, 55억 달러)
나이지리아	84 (11.2%)	인프라 건설 (2006년, 54억 달러)
에티오피아	54 (7.2%)	댐 건설 (2009년, 23억 달러)
수단	54 (7.2%)	철도 건설 (2007년, 14억 달러)
모리타니	46 (6.1%)	원유 탐사, 하수도 시스템 (2006년, 40억 달러)
앙골라	42 (5.6%)	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(2004년, 15억 달러)
적도기니	38 (5.1%)	원유 개발 (2006년, 27억 달러)
짐바브웨	38 (5.1%)	발전소 건설 (2004년, 10억 달러)
카메룬	30 (4.0%)	상수도 시스템 (2009년, 8억 달러)
남아공	23 (3.1%)	광산 개발, 인프라 건설 (2011년, 23억 달러)
기타	227 (30.3%)	**(미지원국: 감비아, 부르키나파소, 스와질랜드)**
총 합계	750 (100.0%)	

* 우대차관 포함
자료: AidData.org &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.

<그림 2>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규모 지도 (2000~11년)



* 감비아, 부르키나파소, 스와질랜드는 2011년 말 당시 대만과 수교국
(감비아는 2013년 11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)
*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하였으므로 본 지도에서는 수단에 포함
자료: AidData.org &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.

□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(FOCAC)을 통해 대 아프리카 경협 구체화

○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매 3년마다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(Forum On China-Africa Cooperation; FOCAC)을 개최하고 있음.

- FOCAC은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중국의 대 아프리카 경협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장이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.

○ FOCAC을 통해 발표된 주요 경협 실행방안으로는 만기가 도래한 빈곤국의 무이자 차관과 부채 전액 탕감(2006년), 중국-아프리카개발기금의 조성(2006년), 그리고 3년 단위 우대차관 한도 증액 설정(2012년, 200억 달러) 등이 있음.

○ 최근에는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협력 확대,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통합 지원, 아프리카연합(AU)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상설군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.

2006년 제3회 FOCAC
-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8대 조치 -

1) 대만과 수교한 5개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48개국에 대해 **2005년 말 만기 도래한 무이자 차관과 부채를 전액 탕감**

2) 대 아프리카 **원조 규모**를 **2009년까지 2006년의 2배**로 증대

3) **30억 달러** 규모의 **우대차관** 제공

4) 아프리카 수입업자에게 **20억 달러** 규모의 **우대 신용대출** 제공

5)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위한 **중국-아프리카개발기금(China-Africa Development Fund; CADF)** 조성

6) **아프리카산 무관세 수입상품** 수를 190개에서 **440개**로 확대

7) 아프리카에 3~5개 **경제무역협력구** 설치

8) 15,000여명의 아프리카 인재에게 **중국 유학을 통한 연수 기회** 제공

2009년 제4회 FOCAC 각료회의
-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8대 조치 -

1) 중-아프리카 간 **기후변화 대응 동반자 관계** 수립(아프리카의 태양에너지, 메탄가스, 소규모 수력발전 등 100개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 결정)

2) **과학기술협력 강화**: 100개 공동 과학기술연구 시범사업 실시, 아프리카의 박사학위 인력(100명)의 중국 내 연구 및 귀국 후 활동 지원

3) 대 아프리카 융자 확대: 향후 3년간 **100억 달러**의 **우대차관** 제공

4) 아프리카 제품의 대 중국 수출 확대: **2010년 60% 제품의 면세조치** 실시

5) 농업 부문 협력 강화

6) 의료-위생 부문 협력 심화

7)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협력 확대

8) 인적교류 확대

2012년 제5회 FOCAC 각료회의
-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5대 방침 -

1) 투자·대출 확대로 아프리카 경제의 지속적 성장 지원
   - 2013~15년 중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**대출조건 우대자금 200억 달러** 공여
     : 도로, 항구 등의 인프라 정비와 농업, 제조업,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

2) 대 아프리카 원조의 성과를 아프리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연결
   - **농업기술 지원센터 증설**로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력 제고
   - "아프리카 인재 프로젝트"로 다양한 분야에 3만 명의 인재 육성

3) 아프리카 지역통합 지원
   - 아프리카 국가들의 **인프라 정비**에 **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** 장려
   - 아프리카의 세관, 검역 등 개선 지원으로 **역내무역의 편리성 제고**

4) 민간 학술교류 촉진, 동반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

5)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환경 창출 지원
   - **AU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상설군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**

□ 투자분야의 다양화와 합작투자의 적극 수용

○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는 초기에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광업과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었음.

- 업종별 비중은 광업 30.6%, 건설업 16.4%, 제조업 15.3% 등임.

○ 최근 들어 금융, 제조업, 서비스업, 농업 등으로 투자분야가 확대되면서 투자대상 국가들에 실질적인 고용 창출의 효과를 주고 있음.

○ 또한, 중국의 시장 잠식에 대한 아프리카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.

□ 금융지원 강화: 아프리카의 자금 부족 완화

○ 중국수출입은행(ChinaEXIM)은 우대차관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,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 애로의 해소에 나서고 있음.

- 주력 지원 부문은 철도, 도로, 발전·송전 등 인프라 분야로, 최근의 주요 지원 프로젝트로는 케냐 철도 건설(40억 달러) 및 나이지리아 2개 발전소 건설(6억 달러) 등이 있음.

○ 중국-아프리카개발기금(CADF)은 2006년 10억 달러에서 2012년 50억 달러로 증대되었으며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있음.

- 합작투자 방식은 지분투자가 중심이며, 10년 이내의 투자기간 종료 후 중국측이 현지 파트너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

Ⅲ. 시 사 점

□ 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분야 지원 병행 전략 필요

○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경험한 자금 부족, 산업기반 취약, 인프라 빈약 등의 문제를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유하고 있음.

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, 산업기반 육성 등이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원조,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이 절실함.

○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만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음.

○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빈약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,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에는 자금 지원의 동반이 필수적임.

-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-윈(win-win)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원조, 투자를 통한 자금 투입이라는 하드웨어 분야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.

□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

○ 대 아프리카 진출시 신시장 개척,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 확보 등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'선택과 집중'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함.

- 자원을 보유한 국가, 소비시장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, 지역협력체를 주도하는 국가 등에 대한 관심이 요망됨.

구 분	해 당 국 가
자원보유국	나이지리아, 적도기니(원유), 탄자니아, 모잠비크(천연가스), 콩고민주공화국(다이아몬드, 코발트), 남아공(우라늄, 크롬, 백금), 가봉(망간) 등
인구 규모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잠재력	나이지리아(1.8억 명), 에티오피아(0.9억 명), 콩고민주공화국(0.7억 명), 남아공(0.5억 명), 탄자니아(0.5억 명), 케냐(0.4억 명) 등
지역별 경제대국, 지역협력체 주도국	케냐, 탄자니아(동아프리카 공동체), 가나, 나이지리아(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), 남아공, 잠비아(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) 등

작성 : 국별조사실
선임조사역 오경일 (3779-5720)
oki1122@koreaexim.go.kr